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이 농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김선희, 강문희*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Effects of the Peer Relationship Promotion Convergence Program on Self-esteem and Sociality of Children Using a Rural Community Child Center

Sun-Hee Kim, Moon-Hee Gang*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연구의 목적은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이 농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G군에 위치한 5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남녀 초등학교 4-6학년 52명이다(실험군=26명, 대조군=26명). 실험군은 주 1회 50분씩 총 12회기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대조군에게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후 1회 30분씩 총 2회 건강교육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χ^2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에 참여 후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자아존중감($t=2.43$, $p=.018$)과 사회성($t=2.03$, $p=.04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 되었으며, 사회성의 하위영역 중 준법성($t=3.02$, $p=.004$)과 자주성($t=4.42$,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주제어 : 또래, 자아존중감, 사회성, 아동, 농촌

Abstract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eer relationship promotion convergence program on self-esteem and sociality of children using a community child center.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52 children (experimental group=26, control group=26), 4-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from 5 rural community child center.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12 sessions of the program for 50 min, once a week.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 chi-square test, and an independent t-test using SPSS WIN 21.0 program. After completion of the program,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self-esteem($t=2.43$, $p=.018$) and sociality ($t=2.03$, $p=.047$)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result shows that the program is beneficial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sociality of low-income, school-age children. Therefore, the program is recommended the intervention for improvement of self-concept and sociality of children.

Key Words : Peer, Self-esteem, Sociality, Child, Rural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a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in Nursing conferred in Febr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 Moon-Hee Gang (mhgang@cnu.ac.kr)

Received December 4, 2017

Revised March 27, 2018

Accepted April 20, 2018

Published April 28, 2018

1. 서론

우리나라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도부터 ‘저소득보호 아동 중점대책’의 일환으로 설치·운영 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가 빈곤층과 결손가정 아동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1,2]. 하지만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신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3]. 특히 농촌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나 서비스 접근성과 강사나 경제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4,5]. 따라서 농촌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요구된다.

또래관계란 학령기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달성해야 할 과업 중 하나이다. 같은 지역이나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비슷한 나이의 또래들이 형성한 대인관계로 연령에 따른 생리적·심리적 성숙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형성된다[6]. 또래관계는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과 다양한 발달과업의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령기 아동은 성격의 틀과 내적 자아 체계가 형성되며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아동은 급격한 인지적, 신체적 성장을 더불어 학교라는 좀 더 확장된 사회적 환경과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로 이행되면서 비행과 약물남용 등의 행동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7]. 또한 사회성이 미숙한 아동은 충동적인 행동이나 기본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8]. 따라서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통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발달은 건강한 성인로의 성장에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9].

지금까지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집단미술치료[10]를 매주 2회, 90분씩 15회기를 진행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향상되었고, 원예·숲 치료 프로그램[11]을 15회기 진행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미술프로그램[12]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강의식 교육프로그램이나 미술이나 놀이 등을 이용한 비언어적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또한, 아동의 또래관계나 자아존중감 향상

에 관한 연구는 다수였으나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또래관계와 사회성 향상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게다가 아동은 또래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이들 변수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그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언어적인 표현요법과 비언어적인 미술활동 요법을 접목하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던 칭찬이나 자기 개방을 함께 적용한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억압된 감정과 갈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산시킬 수 있도록 하여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존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간에 자아존중감 점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간에 사회성 점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이 농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를 이용하였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군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이다. G군에 소재한 총 16개의 지역아동센터 중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위치, 규모, 프로그램이 유사한 5개 기관을 편의표출하였다. 대상자는 해당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6학년 남·여 아동 중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설문내용을 이해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아동을 선정하였다. K-ARS 점수가 17점 이상의 주의가 산만한 아동과 정신질환을 진단 받거나 약물치료 중인 아동은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선별하였으나 이에 해당되는 아동은 없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t-test에서 양측검정, 효과크기 .80, 유의수준 .05, 검정력 .80로 하였을 때 각 군당 21명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탈락률(30%)을 고려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 27명씩을 모집하였다. 본 연구 참여를 신청한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험군(3개 기관)과 대조군(2개 기관)에 배정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실험군 1명과 대조군 1명이 질병과 이사로 인해 탈락하였으며, 최종 실험군 26명, 대조군 26명의 총 5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C 대학교 IRB의 승인 (제 201503-HR-009호) 후 수행되었다. 연구자는 5개 지역아동센터의 기관장과 담당교사를 방문하여 직접 연구에 협조를 구하였다. 그런 다음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연구에 대한 설명문과 동의서를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였다. 아동과 보호자가 본 연구 참여에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4월 9일부터 2015년 6월 25일 까지였으며, 실험군은 주 1회 50분씩 총 12회기의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대조군은 사전조사 후 12주가 지난 뒤 사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후에 1회 30분씩 총 2회의 건강교육을 제공하였다. 모든 자료 수집은 사전에 훈련을 받은 정신보건간호사 2인이 개인 면담을 통해 수행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3]가 개발하고 Jeon[14]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부정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범위는 10-50점까지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5$ 였다.

2.3.2 사회성

사회성은 Jung[15]이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사회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준법성, 협동성, 자주성, 사교성의 4개 하위영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영역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이다. 점수범위는 24-96점까지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 수준이 높음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였다.

2.3.3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원[16]에서 개발한 또래상담과 미술치료의 매체활용법[17]을 바탕으로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더하여 미술활동 및 자기표현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던 자기 가치감을 알아가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정신간호학교수 2인과 정신보건간호사 1인에게 타당도를 확인받았다. 본 프로그램은 미술심리치료사 1급과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신과 경력 간호사가 수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회기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12,18]에 근거하여 주 1회, 50분씩 총 12회기로 하였다. 프로그램은 소그룹에서 대그룹 활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자신의 장점 찾기, 의사소통기법, 친구에 대한 이해와 자기이해, 또래관계 내에서 상호작용증진, 나의 꿈과 목표 정하기 등을 주제로 하였다. 매 회기별로 사전조사와 오리엔테이션(1회기), 자신의 손과 손가락에 장점쓰기(2회기), 잡지나 사진을 이용하여 10년 후의 나의 모습 꾸미기(3회기), 다양한 사진을 보며 느낌 나누기 (4회기), 친구의 얼굴을 그리고 장점 쓰기(5회기), 클레이로 친구 선물 만들기(6회기), 게임을 통해 친구와 대화연습하기(7회기), 사포를 이용하여 나무 만들기(8회기), 과일바구니 꾸미기(9회기), 친구에게 도움주기(10회기), 희망과 소원 나무 만들기(11회기), 피드백과 사후조사(12회기)로 진행하였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Kolmogorov-Smirnov 검정결과 모든 자료는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는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고, 동질성 검정은 t-test와 χ^2 -test로 분석 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의 사전과 사후 평균의 차이 값을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실험군은 남자 14명, 여자 12명이었고, 대조군은 남자 10명, 여자 16명이었으며, 학년은 실험군 46.2%, 대조군 42.3%로 모두 5학년이 가장 많았다. 함께 살고 있는 부모는 한 부모가정인 경우 실험군 26.9%, 대조군 19.2%였으며, 나머지는 양쪽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경제적 상태의 인식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11.5%에서 “나쁘다”라고 인식 하였고 실험군 53.8%, 대조군 65.4%가 “보통”, 그 외에는 “좋다”라고 인식하였다. 또래관계의 인식에서는 “매우 나쁨”은 없었지만 “나쁨”이 실험군 7.7%, 대조군 3.8%에서 나타났고 그 외에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상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은 없었지만 “보통”이 실험군 15.4%, 대조군 19.2%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만족”이상이었다. 동질성 검증 결과, 모든 일반적 특성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N=52)

Variables		Exp.	Cont.	x ² /t	p
		(n=26) n(%)	(n=26) n(%)		
Gender	Male	14(53.8)	10(38.5)	-1.10	.275
	Female	12(46.2)	16(61.5)		
Grade	4th	5(19.2)	9(34.6)	1.29	.825
	5th	12(46.2)	11(42.3)		
	6th	9(34.6)	6(23.1)		
Living with parents	Both	19(73.1)	21(80.8)	.64	.520
	Single	7(26.9)	5(19.2)		
Perceived economic status	Good	9(34.6)	6(23.1)	-.67	.506
	Moderate	14(53.8)	17(65.4)		
	Bad	3(11.5)	3(11.5)		
Perceived peer-relationship	Very good	11(42.3)	12(46.2)	.72	.473
	Good	6(23.1)	8(30.8)		
	Moderate	7(26.9)	5(19.2)		
	Bad	2(7.7)	1(3.8)		
	Very bad	0(0.0)	0(0.0)		
Perceived self-image	Very satisfaction	15(57.7)	14(53.8)	-.35	.723
	Satisfaction	7(26.9)	7(26.9)		
	Moderate	4(15.4)	5(19.2)		
	Dissatisfaction	0(0.0)	0(0.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3.2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사전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의 동질성 검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실험군의 평균이 38.38±5.19점, 대조군 평균은 39.69±5.30점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사회성은 실험군의 평균이 60.62±11.35점, 대조군 평균 65.85±10.73점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 가설1을 t-test로 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사전 38.38점에서 사후 40.65점으로 2.27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39.69점에서 사후 37.04점으로 2.65점이 감소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자아존중감의 사전과 사후 차이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43, p=.018). 따라서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가설2을 t-test로 검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사회성 점수는 사전 60.6점에서 사후 69.9점으로 9.3점이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65.8점에서 사후 64.6점으로 1.1점이 감소하였다. t-test로 가설을 검정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사회성의 사전과 사후 차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03, p=.047). 따라서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사회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사회성의 하위영역 중 준법성은 실험군에서 사전 15.38점에서 사후 18.21점으로 증가하였고, 자주성은 사전 16.67점에서 사후 18.63점으로, 사교성은 18.15점에서 사후 19.62점으로 증가하였다. t-test로 검정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준법성의 사전과 사후 차이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3.02, p=.004), 자주성의 사전과 사후 차이 값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4.42, p=.001). 반면에, 협동성과 사교성의 사전과 사후 차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Table 2. Homogeneity Test of Self-esteem and Sociality between Two Groups (N=52)

Variables		Exp. (n=26)	Cont. (n=26)	t	p
		Mean±SD	Mean±SD		
Self-esteem		38.3±5.19	39.6±5.30	-0.89	.373
Sociality	Total	60.6±11.35	65.8±10.73	-1.70	.094
	Respect for law	15.3±3.20	17.8±2.65		
	Collaboration	13.5±2.67	13.4±2.50		
	Independency	16.6±2.27	16.2±2.34		
	Sociability	18.1±3.21	18.3±3.24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Comparison of Differences of Self-esteem between Two Groups (N=52)

Variables	Group	Post-test	Differences (Post-Pre)	t	p
		Mean±SD	Mean±SD		
Self-esteem	Exp. (n=26)	40.6±5.37	2.7±5.26	2.43	.018
	Cont. (n=26)	37.0±5.33	-2.6±3.19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Comparison of Differences of Sociality between Two Groups (N=52)

Variables	Group	Post-test	Differences (Post-Pre)	t	p
		Mean±SD	Mean±SD		
Sociality	Exp. (n=26)	69.9±9.44	9.3±8.55	2.03	.047
	Cont. (n=26)	64.6±9.25	-1.1±4.14		
Respect for law	Exp. (n=26)	18.21±3.11	2.83±0.09	3.02	.004
	Cont. (n=26)	17.15±2.21	-0.7±0.44		
Collaboration	Exp. (n=26)	13.46±2.21	-0.08±0.46	.84	.403
	Cont. (n=26)	13.96±2.65	0.54±0.15		
Independency	Exp. (n=26)	18.63±2.04	1.96±0.23	4.42	.001
	Cont. (n=26)	15.78±2.24	-0.49±0.1		
Sociability	Exp. (n=26)	19.62±2.08	1.47±1.13	1.38	.174
	Cont. (n=26)	17.76±2.15	-0.55±1.09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2회기의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이 농

촌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아존중감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적 훈련을 초등학교생에게 적용하여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19] 결과와 학교폭력 가해아동을 대상으로 배려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선행연구[20]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방과 후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의 참여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연구[21]와 유사하였다. 반면에,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방식의 또래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선행연구결과[18]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프로그램 과정에서 1회기부터 5회기까지는 주로 자기 자신과 또래 구성원들에 대해 이해를 기반으로 칭찬 및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고 자기 가치감을 느끼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프로그램의 1회기 오리엔테이션 때와 2회기 “자신의 손가락에 장점쓰기” 프로그램 시 다소 서먹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으나, 아동들의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회기가 거듭될수록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2회기 활동인 “자신의 손과 손가락에 장점쓰기”에서는 자신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가고 긍정적인 자기탐색을 할 수 있었다. 3회기 “잡지나 사진을 이용하여 10년 후 나의 모습 꾸미기”에서는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한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기 가치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고, 간간히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아동에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며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했다. 5회기 “친구의 얼굴을 그리고 장점 쓰기”에서는 또래의 얼굴을 도화지에 그리는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서로가 생각하는 장점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또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아동들 자신과 또래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와 칭찬 및 긍정적 피드백을 기반으로 자아존중감을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사회

성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이 농촌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성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는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워 본 연구와 비슷한 선행연구를 파악하였다. 특수학급 학습장에 학생에게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성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결과[22]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중학생에게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성과 자아상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결과[23]와 일치한다. 본 프로그램 과정에서 6회기부터 12회기까지는 주로 그룹 활동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연습과 대인관계 형성 기술 및 능력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프로그램 중 6회기에서 “클레이로 친구 선물 만들기”에서는 아동들이 부드러운 클레이 점토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였고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달하여 대인관계 형성과 자기 표현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한 아이는 최근에 다뤘던 친구에게 점토 선물을 전달하여 칭찬과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8회기 “사포를 이용하여 나무 만들기”에서는 사각형의 큰 사포에 나무 그림을 그려 조각내어 나눠준 뒤 각자의 나무 부분을 색칠하고 꾸며 다시 하나로 합쳤을 때, 창의적이고 새로운 나무 형상이 나타났다. 이에 아동들은 성취감을 느꼈고 협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12회기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와 또래간의 롤링페이퍼를 쓰며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였다. 서먹하고 자기표현을 잘 하지 않았던 1회기 때와는 달리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마무리 하였다. 즉 본 프로그램은 또래 구성원들 간에 소그룹에서 대그룹으로의 그룹 활동을 기반으로 대인관계 형성 기술 및 능력과 협동에 대해 알아감으로써 사회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결과 사회성의 하위영역에서 준법성과 자주성 향상에 효과가 있었으나 협동성과 사교성에는 효과가 없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였고, 학령기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농촌의 저소득층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건

강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선행연구결과[12,21,22]를 토대로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을 통합하여 또래관계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농촌 지역아동센터를 편의표본 추출하였으며, 자가 보고에 의한 자료수집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전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후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 및 이벤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성의 하위영역 중 준법성과 자주성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서 더 연구되기를 기대하고,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던 협동성과 사교성을 함께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보완 및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농촌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 조건으로 확대하고 본 프로그램의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대한 효과의 유지기간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M. S. Kim. (2009). An Evaluation of the Child Educator Supply Program in Child Welfare Centers. *Health Welfare Policy Forum*, 153, 76-89.
- [2] H. J. Kim. (2017). A Study on the Inhibiting Factors of Case Management in Child Welfare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2), 183-196.
- [3] H. Y. Lee, Y. K. Park, S. R. Yoo, S. W. Jung & J. W. Ko. (2012. Sep). Panel Survey on Children & Youths in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and Welfare Facilities III-Focusing on the Community Child Centers, After-School-Academies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2, R09.
- [4] S. A. Kim, W. S. Park, Y. K. Kim & I. H. Song. (2010). Alcohol Drinking, Smoking and Health Behaviors among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in Gangneung - Focused on Children in the After-School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4(2), 194-205.
- [5] N. S. Kim. (2013). The Exploratory Study on Community Link of Community Childcare Cent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2), 803-810.

- [6] H. G. Kim & J. H. Choi. (2006). Types of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Relationship of such Communication with Delinquent Behaviors. *Journal of Future Education*, 13(1), 57-79.
- [7] C. K. Kim & M. H. Kim. (2005).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Program on a Depression, Daily Stress, and Self-esteem of Depressed Childre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4, 75-105.
- [8] H. G. Kim & J. H. Choi. (2006). Types of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Relationship of such Communication with Delinquent Behaviors. *Journal of Future Education*, 13(1), 57-79.
- [9] J. A. Oh. (2011). Stress Domains Affecting the Self-esteem in Late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5(2), 132-140.
- [10] M. Y. Ha & S. G. Nam. (2011).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the Self-esteem and Sociability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Korean Arts Therapy*, 11(2), 219-245
- [11] S. J. Choi & Y. S. Koh. (2014). Effect of Combined Program of Horticultural Therapy and Forest Therapy on Self-esteem, Social Competence, and Life Respect of Low-income Family Children at Community Children's cent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Social Work*, 29, 671-698.
- [12] K. M. Park, M. H. Gang & K. O. Oh. (2017). The Effects of the Magic Program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Rural Low-income Childr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2), 207-213.
- [13] Rog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4] B. J. Jeon.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1), 107-130.
- [15] B. M. Jung. (1971). *Personality Inventory Method for the Bedpan for Middle School*. Seoul: Korea Testing Center, 21-35.
- [16] Korea Youth Counselling and Welfare Institute. (2000). *Development of a Step-by-step Peer Counseling Program*, Seoul.
- [17] S. J. Kim & I. O. Hwang. (2014). The Influence of Peer Counseling Program on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s of Peer Counselor. *Journal of Koreans Society for Child Education*, 23(1), 103-117.
- [18] H. O. Jung & H. S. Kim. (2014). Effects of a Positive Peer Relationship Training Program on Self-esteem, Bullying, and Depression for Children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3), 133-141.
- [19] H. R. Kwak. (2009). *The Effects of a Peer Relationship Training Program with Structure of Cooperative Learning on Self-esteem and the Peer Relationship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Busan.
- [20] H. S. Na, M. O. Kim & S. M. Cheon. (2014). Effect of Care Promotion Programs on Self-esteem, Aggressiveness, and Peer Relationship of School Violence Bull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0(4), 291-315.
- [21] H. J. Kim & D. W. Jung. (2011). Effects of After-school Self-esteem Program on the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Eco-early. *Journal of Childhood Education*, 10(4), 71-90.
- [22] H. H. Lim. (2014). An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Adolesc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 Focusing on Improvement of Self-esteem and Sociability.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4), 231-238.
- [23] S. M. Lee & N. S. Noh. (2017). The Effect of Group Play Therapy Using Figure on Sociality and Self-image-Focused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Community Child Center-.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15(2), 5-18.
- [24] S. H. Kim, M. K. Park & S. M. Cheon. (2016). Effect of Integrated Arts Therapy on Self-expression,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 of Withdrawn youth. *Journal of the Korean arts Psychotherapy*, 12(3), 109-136.

김 선 희(Kim, Sun Hee) [정회원]



- 201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석사)
- 2017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정신 간호학
- E-Mail : ehdtmffo@naver.com

강 문 희(Gang, Moon Hee) [정회원]



- 200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0년 8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학
- E-Mail : mhgang@cnu.ac.kr